

공동체 소식



연중 제33주일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라라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성자께서 오시어, 뽀힌 이들을 모두 하느님 나라에 모아들이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11월 기도지향

- 서한석 시메온, 김수희 아네스 가정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평신도 주일

-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로서의 신원과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고 새기며, 각자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연중 제34주일'(11/22)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편 믿는 이들 안에서는 이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6(목)이지만, 이날 대축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본당 평협회

- 일시 : 11/15(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없음

- 이번 달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총구역회

- 일시: 11/22(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기타

- 구역모임에 관련하여 : 구역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역모임은, 같은 지역에 속한 모든 분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소식을 듣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무적 성격의 모임입니다. 각자의 특별한 지향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본당의 모든 분이 각자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공동체의 친교와 일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	512	174,175	46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안광민 야고보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나파시오
	이원준 요한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조지연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08	75명	389불	1,640불
김정원, 김정훈, 이내익, 차호섭, 홍순익, 장남순, 이혁구, 고영방 (총 8 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연중 제33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인 오늘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며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정신이 모든 이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겸손하게 청합니다.

그림 묵상

주님의 날

주님께서 채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날'로서,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예고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악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 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1-3
<그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 님 저 를 지 켜 주 소 서 당 신 께 피 신 하 는 이 몸 이 오 이 다

- 주님께서서는 저의 기업 제 잔의 몫이시니 저의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시오니 제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리다. ◎
- 그러기에 제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 두시리다. ◎
-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0,11-14.18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32
<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

쉐 마

지금 실천하지 못한다면...



연중 시기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오늘 복음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환난과 어둠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들은 성경에서 종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와 함께 예수님 비유를 소개합니다.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 역시 표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통해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일한 사건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다니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에 종말은 믿는 이들에게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조금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표현들로 묘사되는 종말은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기다림이 성취되는 때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앙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종말이 구원의 때임을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곧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 사건은 신앙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말의 때는 누가 미리 예견할 수도, 또 그것이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유에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날을 정해 놓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신앙인들은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라는 표현은 물론 미래에 올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을 현재에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단순하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줍니다. 지금, 오늘 믿음에 충실한 이들은 종말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먼 훗날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주어지는 가르침입니다.

-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주춧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판관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생활이 편해져 믿음의 생활도 점차 나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과거를 잘 잊어버리니 말입니다. 세력이 강해진 미디안족이 갑자기 쳐들어와 이스라엘사람들의 곡식과 양과 소, 영소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때, 주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무엇이라 말했나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6,1-22

기드온은 자신이 요구한 기적을 체험하자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셨나요? 그리고 기드온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느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6,23-40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일대가 전쟁의 위기에 휩싸이자, 많은 수의 이스라엘 장병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소집된 장병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을 추리고 추려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장병의 숫자는 삼백 명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적은 장병

숫자에 기드온은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의 장병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없이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미디안족과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 전투 방법이 재미있게 묘사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7,1-25

판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각 부족에 의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엘리야, 사무엘 시대까지(기원전 12~11세기),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해냈고, 평화 시기에는 최고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척 겁이 났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능력으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그때

그때가 되면
빛을 잃은 별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분을 보게 되어

별빛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마르 13,29)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